

곡성군, 위기청소년 발굴 생활·건강 직접 챙긴다

관내 위기청소년 6명 특별지원
관계기관 협력강화, 1:1상담 등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대상
청소년복지심의서 대상자 선발

곡성군이 지역 내 위기청소년의 발굴부터 생활·건강지원까지 꼼꼼히 챙기고 있다. 군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 건강, 학업 등 특별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발굴활동을 펼치고 있다. 관계기관 협력 강화, 1:1 밀착 상담 등으로 관내 위기청소년 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8일 곡성군에 따르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했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대상자와 상담 등을

진행해 왔다.

곡성군은 현재 6명을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생활지원부터 건강, 학업, 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해오고 있다.

향후 적극적인 발굴 활동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와 학업지원비 등 현금 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발한다.

특별지원 대상자는 생활(월 65만원 이하), 건강(연 200만원 이하), 학업(수업료, 학교운영비, 학원비 등), 자립(월 36만원 이하), 상담(월 30만원 이하), 법률



곡성군 관계자들이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연 350만원 이하), 활동(월 30만원 이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구정책과 희망복지팀(061-360-2944)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곡성=김대영 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함평군, 9일부터 추가 접수

함평군이 노후된 경유차량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4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추가 접수를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8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차량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함평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정상기동 판정을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차량의 차종, 연식, 형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함평군은 올해 현재까지 약 200대의 차량 폐차를 지원했으며 이번 추가 접수를 통해 약 100대의 차량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 신청은 9일부터 군청 환경관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부분을 확인하거나 함평군청 환경관리과 기후대응팀(061-320-183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함평=신재현 기자



추석 범죄예방 대응 논의 화순경찰, 치안수요 급증 대비

화순경찰서(서장 장승명)가 지난 6일 경찰서장 주재로 각 과장과 계·팀장, 지역경찰관서장, 협력단체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8일 화순경찰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연휴기간 치안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주요 발생 범죄 및 취약시설 등에 대한 예방,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 혼잡구간 소통 중심의 교통관리 등 각 기능별 대책 방안과 지역관서별 맞춤형 방법 활동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과거 추석 연휴 기간 발생했던 112신고·사건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연휴기간 범죄 발생 및 인파 밀집 예상 지역 위주 순찰·거점근무 강화 및 교통혼잡장소를 중심으로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자율방범대 등과 협력해 가시적 순찰을 전개해 나아갈 예정이다.

명절기간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재발 우려 대상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전화금융 사기 피해예방 등에도 모든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화순=김선종 기자

딥페이크 범죄 예방 합동 캠페인 나주경찰·나주중·나주교육지원청

나주경찰(서장 장진영)이 지난 6일 나주중학교에서 나주교육지원청, 나주중학교 교장, 학생입원진 등 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8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딥페이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했다. 캠페인시 학생 대상 홍보물품 및 전단지를 배부하고 딥페이크 범죄 피해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안내했다.

장진영 나주경찰서장은 “딥페이크는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중범죄인만큼 향후 딥페이크 특별범죄예방교육 및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나주=김용의 기자



곡성을 찾은 관광객들이 뚝방마켓에서 지역 농특산품과 가공품을 살펴보고 있다. 곡성군은 지난 7일 ‘뚝방마켓’을 재개장했다.

곡성군 제공

곡성 ‘뚝방마켓’ 다시 문 열었다

셀러 60여팀·지역조합원 16명
지역 수공예품·농특산품 등
재능기부 공연·나눔 이벤트도

곡성군이 지난 7일 ‘뚝방마켓’을 재개장했다.

8일 곡성군에 따르면 ‘뚝방마켓’ 날개를 달다’라는 슬로건으로 60여 팀의 셀러와 지역조합원 16명이 참여해 수공예품과 지역의 농특산품, 가공품 등 이색적인

상품 판매를 시작한다.

이밖에도 지역 내 중고등부 재능기부 공연과 마술 공연, 소리사랑 재능기부, 아리아 플라멩코, 마을학교 체험부스 운영, 추석맛이 달떡 나눔 이벤트 등도 함께 진행된다.

지금까지 ‘곡성 뚝방마켓’은 창작자들의 독특한 감성을 담은 디자인 소품과 수제빵 등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오감 가득한 문화행사까지 즐길 수 있어 관광객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곡성=김대영 기자

상반기에는 3월부터 6월까지 총 20회를 개장해 1215명의 셀러가 참여했고 6만3425명이 방문, 2억 6000여만 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2016년 첫 시작으로 ‘곡성 뚝방마켓’은 지역민과 셀러, 작가와 예술가 등이 함께 참여해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문화장터로 자리잡았다”며 “하반기에는 사생대회와 가을 미니 운동회, 할로윈데이 이벤트, 크리스마스 선물 증정 이벤트 등을 준비 중으로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군, 신병주 교수 초청 ‘역사에서 배우는 리더십’ 특별 강연회 개최

25일 오후 3시 엑스포공원서

함평군이 건국대학교 신병주(사진) 교수를 초청해 오는 25일 오후 3시 함평 엑스포공원 주재영상관에서 함평아카데미 특별 강연회를 개최한다.

8일 함평군에 따르면 신병주 교수는 외교통상부 외규장각도서관장, 남명학 연구원 상임연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역사학자로, 이번 강연에서 ‘2024년 역사에서 배우는 리더십’을 주



제로 역사 속 다양한 사례를 통해 리더십의 의미와 중요성을 조명할 예정이다.

조선시대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리더십의 교훈을 소개하며 진정한 리더의 자격과 과거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탐구할 계획이다.

이번 함평 아카데미 강연은 무료로 진

행되며 함평군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함평아카데미는 군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을 제공해 삶의 본질과 의미를 탐구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신병주 교수의 강연이 현대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적용할 수 있는 역사적 리더십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함평=신재현 기자